

노인의 성격특성이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양 남 영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7%로 인구 10명 중 1명이고, 2040년에는 32.3%로 인구 10명 중 3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5). 이러한 사회적 인구 변화로 인해 여러 학계에서는 노년기를 질병, 쇠약과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관점보다는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인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에 대하여 많은 학문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Araujo, Ribeiro, Teixeira, & Paul, 2015; Han & Yun, 2015).

성공적 노화는 질병에 의한 장애 위험을 회피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인생 참여를 지속하는 것이다(Rowe & Kahn, 1988). 즉 노인이 자신의 질병 및 그로 인한 장애 없이 관련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면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여 자신의 삶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성공한 노년기 생활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공적 노화는 단순한 수명 연장보다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서적, 영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노년기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져 삶의 만족감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Cosco, Prina, Perales, Stephan, & Brayne, 2014). 그간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이나 영향요인 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편, 선행연구 결과로 보고되어진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

인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수준, 가족 동거여부 등의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관적 건강상태 및 신체건강 등(Han & Yun, 2015; Kim & Park, 2015)으로 대부분 신체 및 사회적 측면에서 그 요인이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 쇠약이나 사회적 관계 결함 이외에도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 이러한 변화된 자신을 수용하는 데는 노인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Chapman, Duberstein, & Lyness, 2007; Jang, 2012; Jeong & Choi, 2011). 따라서 노인의 성격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요인도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노화불안은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복합된 개념으로 개인적 노화과정에서 심리적 안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Lynch, 2000). 또한 다른 불안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수준의 노화불안은 노화에 대한 적응과 준비를 위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높은 노화불안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며 노화를 부인 또는 거부함으로써 노후의 삶에 대한 준비와 적응을 방해할 수 있다(Harris & Dollinger, 2003; Seong, 2013; Shin, 2013). 특히 노인에게 있어 노화불안은 현재의 걱정을 의미하므로 타 연령층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노화불안을 느끼게 된다(Harris & Dollinger, 2003). 심리, 정신적 요소인 노화불안은 노년기를 적응하고자하는 자신의 삶을 저해하는 요소로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간 선행연구로 보고된 노화불안의 영향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종교유무, 질병유무, 직업, 결혼상태, 가족

주요어 : 성격특성, 노화불안, 성공적 노화

1)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nyyang@konyang.ac.kr)

투고일: 2016년 10월 10일 수정일: 2016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2016년 11월 30일

구성, 경제상태, 거주 지역의 규모, 활동참여,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생활만족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신체, 심리 사회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Kim, 2010). 그러나 노화불안은 그에 대한 대응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격특성은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특징적이고 지속적인 모습(Guilford & Zimmerman, 1949; Kim, et al., 2010)으로 전 생애에 걸쳐 심리적 적응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이 동안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된다(Costa & McCrae, 1997). 노년기는 쇠퇴하는 시기로서 공포, 괴로움, 실패 및 분노와 같은 불쾌한 정서가 유쾌한 정서보다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성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노인들이 삶에 대응하는 방식이 자신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Jeong & Choi, 2011). 즉 노인의 성격특성의 수준에 따라 건강한 삶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Chapman, et al., 2007)은 물론 노인이 어떤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변할 수 있다(Jeong & Choi, 2011; Vaillant, 2002).

이에 노인의 성격특성은 개인적 차원에서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여 노화 불안을 조절하고, 노화로 인한 건강을 유지하여 성공적 노화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특성이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여 노년기 적응에 있어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공적인 노년기 삶의 설계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성격특성, 노화불안 및 성공적 노화 정도를 파악하고, 세 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격특성, 노화불안 및 성공적 노화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 및 성공적 노화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격특성과 노화불안 및 성공적 노화 간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격특성이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규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성격특성, 노화불안 및 성공적 노화 정도를 파악하고,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성격특성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대상자는 연구자의 편의추출에 의해 D시 소재 3개의 노인 복지관을 다니는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3.(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11)을 이용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α)은 .05, 효과크기(effect size)는 중간크기 .15, 검정력(power)은 .95, 예측변수를 5개 정도로 감안하여 최소 표본수는 104명이 필요하였으나 중도 탈락의 우려를 고려하여 11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설문조사에 답할 수 있으며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자 중 Kahn, Goldfarb, Pollack와 Peck(1960)이 개발한 노인용 인지측정도구인 정신상태 질문지(mental status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총 12점 만점에 8점 미만인 자로 하였다.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6월부터 11월까지였고,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답하거나 연구자가 설문지를 읽어준 후 답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수거한 110부의 설문지 중 자료가 부실한 2부를 제외하고, 108부를 최종 연구 결과로 분석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 참여 대상자에게 자율적 의지에 따르는 것과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과 언제든지 참여자 의사에 따라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과 수집된 자료 보관 및 폐기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 도구

● 성격특성

성격특성은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특징적이고 지속적인 모습을 말한다(Guilford & Zimmerman, 1949; Kim, et al., 2010). 성격특성은 Kim 등(2010)이 표준화한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Big Five Inventory-Kore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44문항으로 외향성 8문항, 친

화성 9문항, 성실성 9문항, 신경증 8문항, 개방성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항상 그런 편이다' 5점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등(20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52-.7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2-.81로 나타났다.

●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늙어가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이나 두려움의 조합(Lynch, 2000)을 말한다. 노화불안 정도는 Lasher와 Faulkender(1993)이 개발한 노화불안척도(Anxiety about Aging Scale, AAS)를 Choi, Kim, Shin과 Lee(2008)가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 6문항, 노인에 대한 두려움 5문항,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 4문항, 심리적 불안정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i 등(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1$ 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83으로 나타났다.

●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는 질병에 의한 장애위험의 회피,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유지, 적극적인 인생참여의 지속(Rowe & Kahn, 1988)을 말한다. 성공적 노화는 Kim(2008)이 개발한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자율적인 삶 9문항, 자기완성지향 6문항, 적극적 인생참여 5명, 자녀에 대한 만족 5문항, 자기수용 3문항, 타인수용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3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격특성, 노화불안 및 성공적 노화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ANOVA 분석 후 평균비교는 사후검정 Scheffe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격특성과 노화불안 및 성공적 노화 정도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고, 노인의 성격특성이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자 42명(38.9%), 여자 66명(61.1%)이었다. 연령은 65세 -69세 49명(45.4%), 70세-79세 40명(37.0%), 80세 이상 19명(17.6%)이었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46명(42.6%), 중학교 졸업 37명(34.3%), 고등학교 졸업 18명(16.7%), 대학교 졸업 이상 7명(6.4%)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45명(41.6%), 종교가 없는 경우는 63명(58.4%)이었고,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는 21명(19.4%),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는 87명(80.6%)이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68명(62.9%),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40명(37.1%)이었다. 경제상태는 상 12명(11.2%), 중 61명(56.4%), 하 35명(32.4%)이었고, 건강상태는 좋다 17명(15.8%), 보통이다 58명(53.7%), 나쁘다 33명(30.5%)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42(38.9)
	Female	66(61.1)
Age(yr)	65~69	49(45.4)
	70~79	40(37.0)
	80≤	19(17.6)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46(42.6)
	Middle school	37(34.3)
	High school	18(16.7)
	College≤	7(6.4)
Religion	Yes	45(41.6)
	No	63(58.4)
Present job	Yes	21(19.4)
	No	87(80.6)
Spouse	Yes	68(62.9)
	No	40(37.1)
Economic status	High	12(11.2)
	Moderate	61(56.4)
	Low	35(32.4)
Health status	Good	17(15.8)
	Moderate	58(53.7)
	Low	33(30.5)

대상자의 성격특성, 노화불안 및 성공적 노화 정도

대상자의 성격특성은 5점 만점에 대한 평균 점수로 성실성 3.92±0.37점, 친화성 3.88±0.28점, 외향성 3.11±0.35점, 개방성 2.64±0.44점, 신경증 2.32±0.47점 순이었다.

대상자가 지각한 노화불안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79±0.45점이었다. 하부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 2.98±0.66점, 노인에 대한 두려움 2.82±0.55점,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 2.79±0.69점, 심리적 불안정 2.40±0.71점 순이었다.

대상자가 지각한 성공적 노화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1±0.49점이었다. 하부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자율적인 삶 3.98±0.50점, 자녀에 대한 만족 3.92±0.68점, 자기완성지향 3.77±0.61점, 타인수용 3.76±0.62점, 자기수용 3.69±0.67점, 적극적 인생참여 3.62±0.72점 순이었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 정도는 연령(F=8.09, $p<.001$), 현재 직업 유무($t=2.41$, $p=.016$), 경제상태(F=3.22, $p=.021$), 건강상태(F=9.49,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한 결과, 연령에 있어서는 65-74세인 경우가 75세 이상인 경우보다 노화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경제상태에서는 ‘하’인 경우가 ‘상’과 ‘중’인 경우보다 노화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에서는 ‘나쁘다’인 경우가 ‘좋다’와 ‘보통이다’인 경우보다 노화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노화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적 특성 중 성별, 학력,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정도는 배우자 유무($t=2.61$, $p=.011$), 경제상태($F=3.59$, $p=.028$), 건강상태($F=11.6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한 결과, 경제상태에서는 ‘상’인 경우가 ‘하’인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에서는 ‘좋다’와 ‘보통이다’인 경우가 ‘나쁘다’인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유무, 현재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대상자의 성격특성과 노화불안 및 성공적 노화 정도 간의 관계

대상자의 성격특성과 노화불안 정도 간의 상관성에서 노화불안은 성실성($r=-.31$, $p<.001$)과 외향성($r=.22$, $p=.009$)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 신경증($r=.41$, $p<.00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나, 친화성($r=-.05$, $p=.963$)과 개방성($r=-.12$, $p=.844$)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자의 성격특성과 성공적 노화 정도 간의 상관성에서 성공적 노화 정도는 성실성($r=.41$, $p<.001$), 친화성($r=.53$, $p<.001$), 외향성($r=.44$, $p<.001$), 개방성($r=.34$, $p<.001$)간에는

<Table 2> Degree of personality traits, aging anxiety and successful aging (N=108)

Variables		Mean ±SD	Range
Personality traits	Conscientiousness	3.92±0.37	
	Agreeableness	3.88±0.28	
	Extraversion	3.11±0.35	1~5
	Openness	2.64±0.44	
	Neuroticism	2.32±0.47	
Aging anxiety	Fear about loss	2.98±0.66	
	Fear on aging people	2.82±0.55	
	Anxiety on physical appearance	2.79±0.69	1~5
	Psychological instability	2.40±0.71	
	Total	2.79±0.45	
Successful aging	Autonomous life	3.98±0.50	
	Satisfaction with one's offsprings	3.92±0.68	
	Self-completion orientation	3.77±0.61	
	Other-acceptance	3.76±0.62	1~5
	Self-acceptance	3.69±0.67	
	Positive life participation	3.62±0.72	
Total	3.81±0.49		

<Table 3> Difference of aging anxiety and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Aging anxiety		Successful Aging	
		Mean±SD	F/t(<i>p</i>)	Mean±SD	F/t(<i>p</i>)
Gender	Male	2.79±0.43	0.05	3.80±0.47	-0.37
	Female	2.79±0.47	(.661)	3.83±0.52	(.699)
Age(yr)*	65~74 ^a	2.91±0.42	8.09	3.71±0.55	1.62
	75~84 ^b	2.71±0.38	(<.001)	3.85±0.46	(.197)
	85≤ ^c	2.62±0.53	a>b,c	3.78±0.49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2.78±0.40		3.80±0.59	
	Middle school	2.73±0.45	1.13	3.60±0.51	1.71
	High school	2.81±0.43	(.285)	3.92±0.36	(.148)
	College≤	2.79±0.44		4.00±0.35	
Religion	Yes	2.77±0.46	1.35	3.81±0.48	-0.01
	No	2.86±0.39	(.173)	3.81±0.51	(.990)
Present job	Yes	2.74±0.51	2.41	3.85±0.54	0.50
	No	2.82±0.41	(.016)	3.30±0.48	(.617)
Spouse	Yes	2.77±0.42	1.56	3.92±0.40	2.61
	No	2.82±0.49	(.122)	3.70±0.57	(.011)
Economic status*	High ^a	2.68±0.50	3.22	3.87±0.54	3.59
	Moderate ^b	2.78±0.43	(.021)	3.84±0.47	(.028)
	Low ^c	2.90±0.37	a,b<c	3.70±0.42	a>c
Health status*	Good ^a	2.71±0.41	9.49	4.13±0.55	11.67
	Moderate ^b	2.75±0.39	(<.001)	3.82±0.38	(<.001)
	Poor ^c	2.86±0.47	a,b<c	3.54±0.53	a,b>c

*: Sheffe test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나, 신경증($r=-.47$, $p<.001$)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personality traits, aging anxiety and successful aging (N=108)

	Aging anxiety	Successful aging
	<i>r</i> (<i>p</i>)	
Conscientiousness	-.31(<.001)	.41(<.001)
Agreeableness	-.05(.963)	.53(<.001)
Extraversion	-.22(.009)	.44(<.001)
Openness	-.12(.844)	.34(<.001)
Neuroticism	.41(<.001)	-.47(<.001)

대상자의 성격특성이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

대상자의 성격특성이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였다.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 진단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982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10-1.335로 10 이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잔차분석 결과, Durbin Watson 검정결과는 1.998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산출된 노화불안 ($F=10.85$, $p<.001$)과 성공적 노화 ($F=40.34$, $p<.001$)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상자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친 성격특성은 5요인 중 신경증($\beta=.373$, $p<.001$)과 성실성($\beta=-.239$, $p=.002$)으로 노화불안에 대하여 23.2% 설명력을 나타내었고,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친 성격특성은 5 요인 즉, 신경증($\beta=-.301$, $p<.001$), 친화성($\beta=.253$, $p<.001$), 개방성($\beta=.157$, $p=.003$), 외향성($\beta=.151$, $p=.006$), 성실성($\beta=.103$, $p=.041$) 모든 요인에서 성공적 노화 정도에 대하여 45.3% 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의 성격특성이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성격특성은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 개방성, 신경증 순으로 나타났고, 이 중 성실성(3.92점/5점만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경증(2.32점/5점만점)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격특성 중 성실성은 사회적 기준과 규칙, 규정 등을 지키려는 정도이고, 친화성은 상대자와 안정적 어울림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도이다. 외향성은 상대자와 상호작용 및 관심을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aging anxiety and successful aging

(N=108)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ρ	F	ρ	R ²	Adj R ²
Successful aging	Conscientiousness	.111	.103	2.02	.041	40.34	<.001	.453	.442
	Agreeableness	.274	.253	4.30	<.001				
	Extraversion	.153	.151	2.45	.006				
	Openness	.162	.157	3.07	.003				
	Neuroticism	-.267	-.301	-5.75	<.001				
Aging anxiety	Conscientiousness	-.320	-.239	-3.41	.002	10.85	<.001	.232	.212
	Agreeableness	-.005	-.004	-0.06	.745				
	Extraversion	-.090	-.069	-0.87	.364				
	Openness	-.081	-.067	-0.92	.349				
	Neuroticism	.348	.373	5.45	<.001				

교환하는 정도이고, 개방성은 자신과 외부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와 변화에 대한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이며 신경증은 다양한 환경에 정서적으로 안정의 정도와 위협적인 반응을 보이는 정도를 말한다(Costa & McCrae,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노인은 근면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있는 성향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고 우울 및 불안정하거나 신경질적인 것과 같은 부정적인 성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년기는 쇠퇴의 시기로 유쾌한 정서보다 불쾌한 정서가 많다(Jeong & Choi, 2011)는 것과는 달리 부정적인 성향보다 긍정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Bang(2014)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대상자가 지각한 노화불안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79점으로 Shin과 Kim(2009), Kim(2010), Kim과 Park(20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보통 이하 수준의 불안 정도를 나타냈다. 하부영역별 평균 점수에서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2.98점)과 관련된 불안 정도가 가장 높았고, 심리적 불안정(2.40점)과 관련된 불안 정도가 가장 낮았다. 노화불안에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노화불안을 사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이가 들면서 떠나버리거나 잃게 될 무엇인가에 대한 불안을 말하고,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노화에 대한 불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인으로 노화나 노인에 대한 불안이기 보다는 개인적 편견에서 비롯되는 노인에 대한 느낌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걱정은 노화에 따라 신체적 외모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심리적 불안정은 좀 더 개인적이고 내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개인이 노화에 좀 더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당면해야 할 심리적 과제를 말한다(Harris & Dollinger, 2003; Lasher & Faulkender,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인은 노년기 동안 빈번하게 분리, 상실 혹은 이별을 경험하면서 늙어감에 대하여 불안한 정서를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Kim(2010), Jang(2012), Kim과 Park(20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노년기의 상실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상실감을 대체하고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 정도는 연령, 현재 직업 유무, 경제상태,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연령과 주관적 건강수준 및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 Kim(2010)의 연구와 건강과 경제변인이 관계를 보인 Kim과 Park(2015)의 연구 및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인 Shin과 Kim(200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65-74세인 경우이거나 경제상태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및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화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나 노인에게 노화불안은 건강과 복지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를 도입할 때 노년기의 건강과 복지를 함께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가 지각한 성공적 노화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81점으로 Moon(2012), Kim(2013), Kim과 Park(20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보통 이상 수준의 성공적 노화 정도를 나타냈다. 하부영역별 평균 점수에서는 자율적인 삶(3.98점)이 가장 높았고, 적극적 인생참여(3.62점)가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노인은 신체적 및 사회적으로 쇠퇴해진 노년기일지라도 분수를 지키고 단정하며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서 자식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게 된다면 성공적 노화라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년기를 이루기 위해선 허약해진 노인을 무조건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스스로 자율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정도는 배우자 유무, 경제상태,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배우자 유무, 건강 및 경제 변인과 관계를 보인 Moon(2013), Kim과 Park(2015), Han과 Yoon(201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이거나 건강

상태가 ‘좋다’와 ‘보통이다’인 경우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게 나타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노후의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모든 계획 및 수립 시에는 독거노인 혹은 부부노인 등과 같은 노인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성격특성과 노화불안 정도 간의 상관성에서 노화불안은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외향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 신경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 노인은 성격특성이 성실성과 외향성이 강한 성향일수록 노화불안을 낮게 지각하게 되고, 신경증이 강한 성향일수록 노화불안을 높게 지각하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신경증과 낮은 성실성은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Moon 등(2014)의 연구 결과와 낙관적인 성격특성은 삶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ang(2014)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노인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과 성실성은 노화불안에 대하여 23.2% 설명력을 나타내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인이 지닌 성격특성에 따라 노화불안을 경험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노화불안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한 중재 마련 시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성격특성과 성공적 노화 정도 간의 상관성에서 성공적 노화 정도는 성격특성 중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 개방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나, 신경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성격특성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개인이 삶에서 경험하는 행복감, 만족감, 긍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심리적 안녕감과 자신의 일생을 수용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여 과거, 현재, 미래 간에 조화된 견해를 가지고 죽음에 대해 공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자아통합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Kim(2013)의 연구와는 그 의미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노인은 성격특성 중 성실성, 친화성, 외향성, 개방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강한 성향을 지닐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를 높게 지각할 수 있고, 신경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강한 성향을 지닐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를 낮게 지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격특성은 성공적 노화 정도에 대하여 45.3% 설명력을 나타내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이 지닌 성격특성에 따라 성공적 노화 정도를 다르게 지각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특히 노인의 성격특성 중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및 외향성은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Jeong & Choi, 2011)로서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이러한 긍정적인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 주변에서도 이를 적극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볼 때, 노인이 지닌 성격특성은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 정도와 관련성이 있다.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신경증은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5요인의 성격특성 모두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노인의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고 성공적 노화를 이끄는 데 이러한 성격특성을 적극 활용하는 개인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을 다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이상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이 지각하는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성격특성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성격특성은 노년기 쇠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성향보다 긍정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는 보통수준 이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노인의 성격특성 중 성실성이 강한 성향일수록 노화불안을 낮게 지각하고 신경증이 강한 성향일수록 노화불안을 높게 지각할 수 있고, 성격특성 중 긍정적 성향일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를 높게 지각하고, 부정적 성향일수록 성공적 노화 정도를 낮게 지각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이 지각하는 노화불안과 성공적 노화 정도는 현재 직업유무, 배우자 유무,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 등과 같은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고 성공적 노화를 이끄는 데 노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특성을 적절히 파악하여 개별적 차원의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함과 동시에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시도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전체 노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추후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반복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고, 노인의 성격특성별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노인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중재를 개발 및 적용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Araujo, L., Ribeiro, O., Teixeira, L., & Paul, C. (2015). Successful aging at 100 years: the relevance of subjectivity and psychological resources.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4(July), 179-188.
- Bang, S. Y. (2014). Loneliness and suicidal ideation according

- to character type in elderly. *Journal of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4(6), 319-327.
- Chapman, B. P., Duberstein, P., & Lyness, J. M. (2007). Personality traits, educa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among older adult primary care patients.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6), 343-352.
- Choi, S. O., Kim, S. N., Shin, K. I., & Lee, J. H. (2008). Anxiety about aging of a resident community of adul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1), 19-31.
- Cosco, T. D., Prina, A. M., Perales, J., Stephan, B. C. M., & Brayne, C. (2014). Operational definitions of successful aging: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s*, 26(3), 373-381.
- Costa, P. T., & McCrae, R. R. (1997). *Longitudinal stability of adult personality*. In R. Hogan, J. A. Johnson, & S. R. Briggs(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pp. 269-290). Orlando, FL: Academic Press.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11). G*Power 3 :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Guilford, J. P., & Zimmerman, W. S. (1949). *The guilford-zimmerman temperament survey*. Beverly Hills, CA: Sheridan supply.
- Han, S. Y., & Yun, S. N. (2015). Successful aging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the Korean elderly: focused on family support.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6(4), 372-379.
- Harris, L. A., & Clancy Dollinger, S. C.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nd anxiety about ag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187-194.
- Jang, H. S. (2012). Relationships between Aging Anxiety, Trait Anxiety and 5-factor Personality Traits in College Students and Older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5(1), 1-18.
- Jeong, J. H., & Choi, S. I. (2011). The effect of personality traits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8), 47-61.
- Kahn, R., Goldfarb, R., Pollack, M., & Peck, A. (1960). Brief objective measures for the determination of mental status in the age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17, 326-328.
- Kim, A. L. (2013). The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go integrity on successful aging of elders-focused on the elderly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4), 2041-2054.
- Kim, D. B. (2008).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lderly's successful aging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0(1), 211-231.
- Kim, J. H., & Park, J. Y. (2015). The influence of anxiety over aging of elderly group on successful aging and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5(9), 210-222.
- Kim, S. Y., Kim, J. M., Yoo, J. A., Bae, K. Y., Kim, S. W., Yang, S. J., Shin, I. S., & Yoon, J. S. (2010). Standardization and validation of big five inventory-Korean version(BFI-K) in elders. *Korean Journal Biological Psychiatry*, 17(1), 15-25.
- Kim, W. (2010). A comparative study on anxiety about aging of older adult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7, 71-94.
- Lasher, K. P., & Faulkender, P. J. (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 Lynch, S. M. (2000).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22(5), 533-558.
- Moon, J. W., Kim, S. Y., Kim, J. M., Kang, H. J., Kim, S. W., Shin, I. S., Kim, J. T., Park, M. S., Cho, K. H., & Yoon, J. S. (2014).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stroke patients. *Journal Korean Society Biology Therapy Psychiatry*, 20(2), 151-159.
- Moon, M. J. (2013).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aging in elderly people living in rural areas. *Journal Korean Gerontology Nursing*, 15(2), 165-174.
- Rowe, J. W., & Kahn, R. H. (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Dell Publishing a Division of Random House.
- Seong, J. S. (2013). Aging anxiety and death attitudes according to age and sex in middle-aged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Shin, K. I. (2013). Understanding the aging anxiety of the middle aged adults by using Q-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6), 3595-3614.
- Shin, Y. S., & Kim, E. H. (2009). A study on health behaviors, health status and anxiety about aging for the elderly-focused on the elderly in senior center-. *Journal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0(2), 179-188.
- Statistics Korea. (2015). Social indicators in Korea [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5 [cited 2015 March 27].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34501.
- Vaillant, G. E. (2002). *Aging well*. Boston: Little Brown.

The Impact of Aging Anxiety and Successful Aging on the Personality Traits of Elderly

Yang, Nam Young¹⁾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In this study, we sought to identify the impact of aging anxiety and successful aging on the personality traits of elderly. **Method:** Subjects were 108 elderly persons aged more than 65 years. Data collected from June to November 2015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With regard to the mean scores of personality traits, conscientiousness yielded the highest score, and neuroticism the lowest. The mean score on aging anxiety was below average, and that on successful aging was above average. Aging anxiety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age, present job, 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Successful aging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having a spouse, economic status, and health status.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anxiety and conscientiousness,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and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extraversion, openness, and neuroticism. Conscientiousness and neuroticism had an effect on aging anxiety (23.2%), whereas conscientiousness, agreeableness, extraversion, openness, and neuroticism affected aging anxiety (45.3%).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ersonality traits reduce aging anxiety and lead to successful aging among elderly.

Key words : Aging Anxiety, Successful Aging, Personality Trai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ang, Nam Young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158 KwanJeoDong-ro, Seo-gu, Daejeon, 35365, Korea
Tel: 82-42-600-6347 Fax: 82-42-600-6314 E.mail: nyyang@konyang.ac.kr